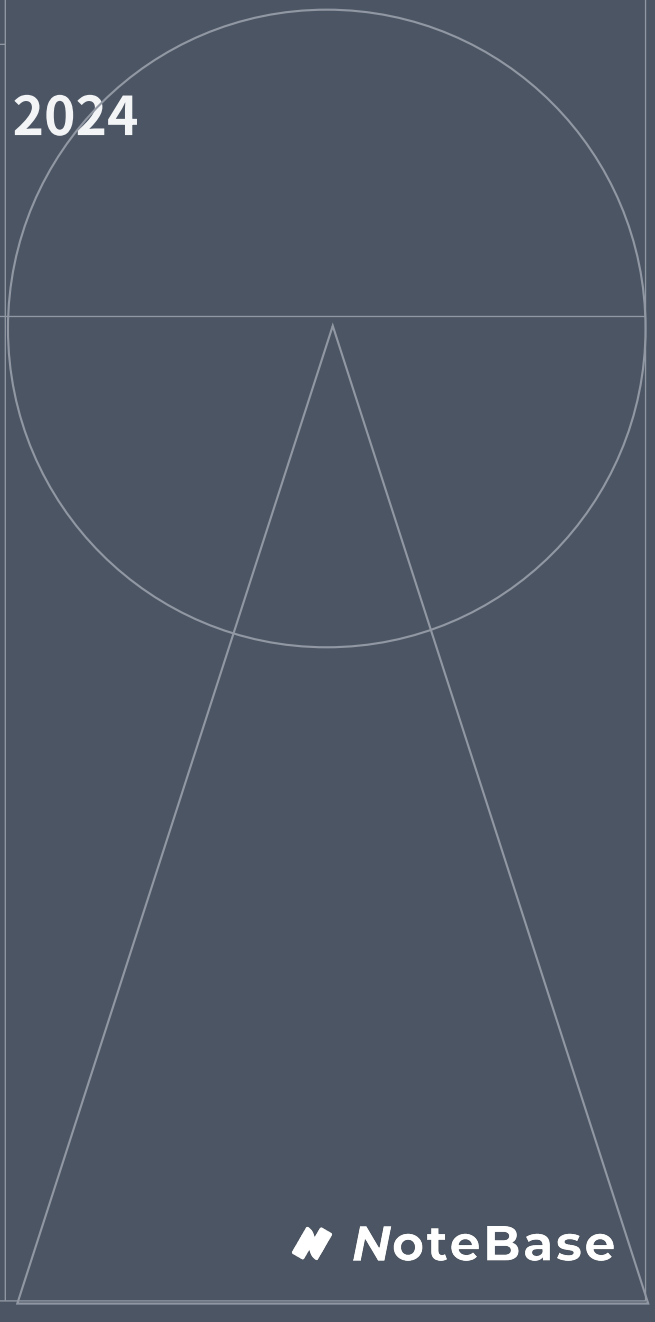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4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4

문 1. (가)~(라)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
(나)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서 오용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 남용은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다)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설명서를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라)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① (나) - (다) - (라) - (가)
② (나) - (라) - (가) - (다)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다) - (나) - (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의 **'더구나'**는 앞서 제시된 피해에 내성으로 인한 피해 증가를 덧붙이므로, 피해를 먼저 설명한 (라) 뒤에 놓인다. (다)의 **'그러므로'**는 이러한 위험을 근거로 올바른 약물 사용을 권하는 결론을 이끈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라) → (가) → (다)

(나): 도입부의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를 이어 받아 **오남용의 뜻**을 설명한다. 오용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고, 남용은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이라는 개념을 먼저 밝혀 이후 설명의 바탕을 마련한다.

(라): 오남용의 뜻을 설명한 뒤, 그렇게 약물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제시한다. 이 문장이 먼저 나와야 (가)에서 피해가 '점점 커지게 된다'고 덧붙일 수 있다.

(가): **'더구나'**는 앞의 내용에 같은 방향의 내용을 보태는 말이다. (라)의 피해 설명에 이어, 글에서 제시한 내성 때문에 사용량이 늘면서 피해도 커진다는 내용을 덧붙인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설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나) 바로 뒤보다 (라) 뒤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이끈다. 오남용의 피해와 그 피해가 커지는 이유를 설명한 뒤,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설명서를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부로 글을 마무리한다.

NoteBase

문 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을: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금수저', '흙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병: 현대 사회가 빈부 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계급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 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갑: 현대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 활동이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①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
②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③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④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을과 갑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현대 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인정한다. 갑이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를 반박하는 대상은 을이 아니라 병의 주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은 을이 말한 빈부 격차의 대물림을 반박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이 사회적 지위와 직결된다는 근거로 현대 사회를 계급사회라고 본다. 갑이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를 반박하는 대상은 병**이다. 병이 언급한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경제적 계급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반박한다.

② O: 을은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갑도 부모의 경제력이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므로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경제력의 대물림이 계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하므로 주장이 대립하지 않는다.

③ X: 갑은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현대 사회가 계급사회라는 결론을 내린다. 병은 문화와 생활 방식 전체를 계급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아 현대 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두 사람은 유사한 결론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결론**을 도출한다.

④ X: 병은 현대 사회의 문화와 생활 방식 전체가 계급 논리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급사회라는 판단을 부정한다. 이는 현대 사회를 계급사회로 보는 **갑과 을 모두의 주장과 대립**한다. 갑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했다는 점만으로 병과 갑의 핵심 주장이 대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로 쓰인 것은?

① 그 친구는 허구헌 날 놀러만 다닌다.

② 닭을 통째로 구우니까 더 먹음직스럽다.

③ 발을 잘못 디뎌서 하마트면 넘어질 뻔했다.

④ 언니가 허리가 잘룩하게 들어간 코트를 입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통째로'는 **나누지 않은 덩어리 전부를 그대로**라는 뜻으로, 닭을 자르지 않고 굽는 상황에 알맞은 표준어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허구헌'은 **'허구한'**으로 고쳐야 한다. '날이나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라는 뜻의 형용사 '허구하다'가 '허구한'으로 활용한다. 문장에서는 '허구한 날'이라고 써서 오랜 시간 매일같이 놀러 다닌다는 뜻을 나타낸다.

② O: **'통째'**는 나누지 않은 덩어리 전부를 뜻하는 명사이며, 여기에 조사 '로'가 붙으면 '통째로'가 된다. 닭을 나누거나 자르지 않고 전체 그대로 굽는다는 뜻이므로 문맥과 표준어 형태에 모두 맞는다.

③ X: '하마트면'은 **'하마터면'**으로 고쳐야 한다. '하마터면'은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뻔한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질 뻔했다는 문맥에서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라고 쓴다.

④ X: '잘룩하게'는 **'잘록하게'**로 고쳐야 한다. 기다란 물건의 한 군데가 패어 들어가 오목하다는 뜻의 표준어는 '잘록하다'이다. 코트의 허리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을 나타내므로 '잘록하게 들어간 코트'라고 쓴다.

NoteBase

문 4. 다음은 다의어 '알다'의 뜻풀이 중 일부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거나 인연이 있다.
㉢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① ㉠: 그 외교관은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② ㉡: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이다.
③ ㉢: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④ ㉤: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질 줄 알았다'는 경기 결과를 **그렇게 예상했다**는 뜻이다. ㉤은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일곱 개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의 예에 해당한다.

② O: ㉡의 '서로 알고 지내다'는 두 사람이 서로 사귀며 관계를 맺고 지낸다는 뜻이다.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사귐이나 인연이 있음**을 나타낸다.

③ O: ㉢의 '내가 알 바 아니다'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자신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알다'가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고, '바 아니다'가 이를 부정한다.

④ X: ㉤에 제시한 '질 줄 알았다'는 그 팀이 경기에서 질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다.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정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제시된 뜻풀이와 맞지 않는다. ㉤의 예로는 '어떻게 할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적절하다. 이때 '알아서'는 일을 처리할 방법을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여**라는 뜻이다.

NoteBase

문 5.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 도심부에서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 교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강 교수: 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기존의 70 km/h에서 60 km/h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진행자: 시의회에서 이 정책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셨나요?
강 교수: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작년에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 적용해 보니, 차가 막히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상 이상의 인명 사고는 26.2% 감소했습니다. 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각각 28%, 21%가량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행자: 아, 그러니까 속도를 10 km/h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 사고의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강 교수: 네, 맞습니다.
진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제한 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강 교수: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①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한다.
②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③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④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진행자는 강 교수가 제시한 통계와 견해를 풀어 설명하고 확인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신의 경험은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도시의 시험 적용 결과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든 사람은 강 교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강 교수가 교통체증의 증가 시간과 인명 사고·오염물질의 감소 수치를 제시하자, 진행자는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안전과 환경을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풀어 말한다. 통계를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이익에 비해 시간 부담이 작다는 취지**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한다.

② O: 진행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 미미한 교통체증 유발, 오염물질 배출 감소라는 강 교수의 견해를 요약한다. 이어 '맞습니까?'라고 물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강 교수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한다.

③ O: 진행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교통체증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소개한다. 이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질문하여 **반대 견해에 대한 강 교수의 의견**을 요청한다.

④ X: 진행자는 운전이나 교통체증 등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도시의 시험 적용 결과와 오염물질 감소에 관한 연구 결과는 강 교수가 제시한 근거이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은 자신의 경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고 견해를 요약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6.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은?

어떤 구성을 두 요소로만 쪼개었을 때, 그 두 요소를 직접구성요소라 한다. 직접구성요소가 어근과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 한다.

① 지우개 - 새파랗다

② 조각배 - 드높이다

③ 짓밟다 - 저녁노을

④ 풋사과 - 돌아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우개'는 어근에 **접미사 '-개'**가, '새파랗다'는 어근에 **접두사 '새-'**가 붙은 파생어이다. 접사가 붙는 위치는 다르지만 두 단어 모두 어근과 접사가 결합했다.

선지별 해설

어근은 단어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새 단어를 만드는 부분이다. 직접구성요소가 어근과 어근이면 합성어, 어근과 접사이면 파생어로 분류한다.

① 지우개 - 새파랗다: '지우개'는 '지우-'에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개'가 붙은 파생어이다. '새파랗다'는 '파랗다'에 매우 짙고 선명하다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가 붙은 파생어이다. 접미사와 접두사라는 차이가 있어도 **둘 다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조각배 - 드높이다: '조각배'는 두 어근 '조각'과 '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드높이다'는 '드높다'의 어간 '드높-'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파생어이다. 따라서 합성어와 파생어가 짝을 이룬다.

③ 짓밟다 - 저녁노을: '짓밟다'는 '밟다'에 마구 또는 몹시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짓-'**이 붙은 파생어이다. '저녁노을'은 두 어근 '저녁'과 '노을'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두 단어의 종류가 다르다.

④ 풋사과 - 돌아가다: '풋사과'는 '사과'에 아직 덜 익었다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풋-'이 붙은 파생어이다. '돌아가다'는 두 어근 '돌-'과 '가-'가 연결 어미 '-아'를 매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연결 어미 '-아'는 파생 접사가 아니므로** 두 어근 사이에 '-아'가 있다고 해서 파생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단어의 종류가 같은 짝은 '지우개 - 새파랗다'이며, 두 단어는 모두 파생어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①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④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 시는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고향의 풍경을 묘사한다. '사랑스러운 들길'과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에서는 고향을 잃은 상실감보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늘쪽', '들길', '울타리', '화초' 등은 **농촌의 생활과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향토적 소재**이다. 소녀의 생김새와 들길, 마을의 모습을 이러한 소재로 그려 고향의 정겨운 공간 풍경을 보여 준다.

② O: 마지막 연에서 **'~마을이 있다'라는 문장 구조**를 세 차례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둘째 연에서도 '피듯', '타듯', '날듯', '흐르듯'처럼 유사한 표현을 이어 고향 풍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느낌을 준다.

③ X: 시에서 말하는 주체인 화자는 존재하지만, '나'나 '우리' 같은 표현으로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사랑스러운 들길', 화초와 별이 있는 마을의 모습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어 상실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고향의 풍경을 통해 애정과 친근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O: **'천연히'라는 하나의 시어가 독립된 연**을 이룬다. 이 말은 앞의 자연 풍경과 뒤의 마을 모습을 이어 주면서,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두드러지게 한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진화 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의 적응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구석기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원시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등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원시시대의 적응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①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②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③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④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과거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 적응 성향과 환경에서 얻은 정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째 문단은 인간의 행동을 유전적 적응 성향과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행동은 환경, 마음은 유전이 각각 결정한다고 나눌 수 없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고쳐야 한다.

② X: 둘째 문단은 원시시대의 인지적 전략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상황이 복잡할수록 인지적 전략이 최적화된다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의 인지적 전략은 **복잡한 상황에서 항상 최적의 적응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첫째 문단에서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하는 요인이다. 같은 조상을 두었다고 해도 환경에서 얻는 정보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므로, **환경에서 얻은 정보의 차이**에 따라 후손들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④ X: 글은 유전적 적응 성향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만, 과거 환경이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과거 환경과 유전적 성향 사이의 우선순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문단의 요지는 과거의 적응 방식이 현재에도 남아 있어 오늘날의 환경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NoteBase

문 9. (가)~(다)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실을 (가)한 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그는 (나)이 잦아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잃었다.
◯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 (다)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① (가): 度外視, (나): 食言, (다): 矛盾
② (가): 度外視, (나): 添言, (다): 腹案
③ (가): 白眼視, (나): 食言, (다): 矛盾
④ (가): 白眼視, (나): 添言, (다): 腹案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에는 **도외시(度外視)**, 말을 지키지 않아 신의를 잃었다는 뜻에는 **식언(食言)**이 어울린다. 사회 구조 안의 서로 맞지 않는 관계는 **모순(矛盾)**으로 표현한다.

빈칸별 해설

(가) 도외시(度外視): 어떤 대상을 문제 삼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실패했다는 문맥이므로 '현실을 도외시한'이 자연스럽다. 백안시(白眼視)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의 도외시**와 구별된다.

(나) 식언(食言): 자기가 한 말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말을 자주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잃게 되므로 '신의를 잃었다'와 연결된다. 첨언(添言)은 덧붙여 하는 말이므로, **말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나타내야 하는 이 문맥에는 맞지 않는다.

(다) 모순(矛盾): 서로 맞지 않거나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를 뜻한다. 소설이 당대 사회 구조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문맥에서는 '구조적 모순'이 어울린다. 복안(腹案)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으로, **사회 구조의 모순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가) 度外視, (나) 食言, (다) 矛盾의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 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오프라인'이나 '대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실체감이 있는 아날로그적 접촉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들도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아날로그 상호작용 수단과 디지털 상호작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혹은 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분법적인 범주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①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②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에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③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글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단정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의 마지막 문장은 상호작용 양식들이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을 이해할 때 이분법적 범주가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고 했다. 이분법적 시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서로 나누므로, 두 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② X: 글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따라서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표현은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다만 온라인 관계가 언제나 오프라인 관계보다 더 깊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아날로그 수단과 디지털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은 **온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④ O: 글에서는 누군가와 만나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을 통한 상호 관계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사는 장화와 홍련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원통한 사정에 대해 고한 말을 듣고 배 좌수를 관아로 불러들였다. 부사가 물었다.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 배 좌수는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후처가 엿보고 있다가 남편이 사실을 누설할까 싶어 곧장 들어와 답했다. “제 친정은 이곳의 양반 가문입니다. 장녀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 낙태한 뒤 부끄러움을 못 이기고 밤을 틈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차녀 홍련은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낙태한 증거물을 바치니 부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는 그것을 보고 미심쩍어하며 모두 물러가게 했다.

이날 밤 운무가 뜰에 가득한데 장화와 홍련이 다시 나타났다. “계모가 바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 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다 배를 갈라 보시면 분명 허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에 부사가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쥐가 분명했다.

— 『장화홍련전』에서 —

① 부사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② 배 좌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부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③ 장화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 주었다.

④ 배 좌수는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장화는 계모가 바친 것이 죽은 쥐라고 밝히고, **그 배를 갈라 보라**고 부사에게 알려 주었다. 부사가 그대로 하여 쥐임을 확인했으므로, 이는 계모가 내놓은 증거가 거짓임을 밝히는 계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부사는 후처가 바친 증거물을 보고 **미심쩍어했다**. 증거물을 의심하며 모두 물러가게 했으므로,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다.

② X: 후처가 음행과 낙태를 저지르고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거짓말한 대상은 **홍련이 아니라 장화**이다. 홍련에 대해서는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는 후처가 꾸며 낸 설명으로, 실제 사건과 구별해야 한다.

③ O: 장화는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자신의 이불 안에 몰래 넣었다고 밝히고, 증거물을 다시 가져다 **배를 갈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부사가 그 말대로 하자 쥐임이 드러났으므로, 장화가 증거의 거짓을 확인할 계책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 X: 배 좌수가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부사의 질문은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은 것이 아니라, 딸들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를 물었다.

NoteBase

문 12.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가) ~ (라)에서 고르면?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 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난중일기』의 진면목은 7년 동안 전란을 치렀던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가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는 데 있다. (가) 왜군이라는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임금과 조정의 끊임없는 경계와 의심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우며, 영웅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나) 전란 중 겪은 원균과의 갈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보통의 인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다)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라) 『난중일기』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어진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병졸·하인·백성의 이름을 기록한 의미**를 풀어 설명한다. 뒤 문장의 '바로 여기'는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이들을 일기에 기록했다는 가치를 가리킨다.

NoteBase

핵심 풀이

(가)·(나): 글의 앞부분은 『난중일기』에 드러난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를 설명한다. 임금과 조정의 의심으로 느낀 심리적 고통과 원균과의 갈등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이다. 이 사이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록에 관한 문장을 넣으면 **인간적 고뇌와 그 사례의 연결**이 끊긴다.

(다): 뒤의 '그뿐만 아니라'는 이순신의 고뇌가 드러난다는 가치에 더하여, 여러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가치를 제시한다. 주어진 문장은 이 두 번째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므로, 이름을 언급했다는 문장보다 앞에 놓으면 설명의 대상이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

(라): 바로 앞 문장은 이순신이 가족뿐 아니라 휘하 장수, 병졸,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주어진 문장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은 이 가운데 병졸·하인·백성처럼 이름을 남기기 어려웠던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는 그 이름을 기록한 의미를 구체화한다. 이어지는 '『난중일기』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의 **'여기'는 이처럼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을 기록한 가치**를 가리킨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앞의 기록 내용과 뒤의 가치 평가를 잇는 (라)에 들어간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어떠한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인고. 불안과, 초조와, 기대와…… 그 조그만 종이 위의, 그 짧은 문면(文面)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또 확실하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람은 제게 온 전보를 받아 들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구보는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의 전보를 그 봉함(封緘)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전보가 못 되면, 보통우편물이라도 좋았다. 이제 한 장의 엽서에라도, 구보는 거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게다.

흥, 하고 구보는 코웃음쳐 보았다. 그 사상은 역시 성욕의, 어느 형태로서의, 한 발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자연하지 않은 생리적 현상을 무턱대고 업신여길 의사는 구보에게 없었다.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 지 오래였고 또 그 벗들도 이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을꼬. 한 해에 단 한 번 연하장을 보내 줄 따름의 벗에까지, 문득 구보는 그리움을 가지려 한다. 이제 수천 매의 엽서를 사서, 그 다방 구석진 탁자 위에서…… 어느 틈엔가 구보는 가장 열정을 가져,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다. 한 장, 또 한 장, 구보는 재떨이 위에 생담배가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온갖 벗의 이름과 또 주소를 엽서 위에 흘려 썼다…… 구보는 거의 만족한 웃음조차 입가에 띠며, 이것은 한 개 단편소설의 결말로는 결코 비속하지 않다, 생각하였다. 어떠한 단편소설의—물론, 구보는, 아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

①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하고 있다.
② 주인공인 서술자가 주변 거리를 재현하고 있다.
③ 연상 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④ 전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구보는 전보 배달의 자전거를 보고 소식을 받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이어 벗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나의 대상이 다음 생각을 불러오는 **연상 작용**에 따라 인물의 내면이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벗들과 함께 겪은 과거의 일을 시간순으로 되짚는 장면은 없다. 구보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벗들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과거 추억의 순차적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생각과 상상의 흐름**이 중심이다.

② X: 서술자는 구보를 '나'가 아니라 '구보', '그'로 지칭하며 그의 충동과 생각을 전달한다. 따라서 **작품 밖의 3인칭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가는 외부 장면은 생각의 계기이며,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주변 거리를 재현하는 방식은 아니다.

③ O: 연상 작용은 어떤 대상이나 생각이 그와 관련된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구보는 전보 배달의 자전거에서 전보를 받는 사람의 감정을 떠올리고, 자신도 전보나 엽서를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소식이 끊긴 벗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각이 이어지고, 벗들에게 편지를 쓰는 자기 모습을 상상한 뒤 그것을 단편소설의 결말과 연결한다. 이처럼 **앞선 대상이나 생각이 다음 생각을 불러오며** 인물의 의식이 연속된다.

④ X: 전보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떤 장소들을 거쳐 전달되는지는 제시되지 않는다.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 뒤에는 전보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구보의 생각이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 서술이 전개된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徘徊)하였다. → 돌아다녔다

② 이 산의 광물 자원은 무진장(無盡藏)하다. → 여러 가지가 있다

③ 그분의 주장은 경청(傾聽)할 가치가 있다. → 귀를 기울여 들을

④ 공지문에서는 회의의 사유를 명기(明記)하지 않았다. → 밝혀 적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무진장하다'는 **다함이 없을 만큼 매우 많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이므로, 광물 자원의 양이 매우 많다는 원래 의미를 살리려면 '한없이 많다'로 바꾸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배회하다'는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의미이므로 '돌아다녔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X: '무진장하다'는 다함이 없을 만큼 매우 많다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광물 자원의 양이 매우 많음**을 나타낸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자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의미이므로 원래 뜻과 다르다. '무진장하다'는 '한없이 많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O: '경청하다'는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청할 가치가 있다'를 '귀를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통한다.

④ O: '명기하다'는 **분명하게 밝혀 적다**는 뜻이다. '회의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유를 밝혀 적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밝혀 적지 않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 님믈 그리ᄉᆞ와 우니다니
> 산(山) 졉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 아니시며 거츠르신 ᄃᆞᆯ 아으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ᄅᆞ시리이다
> 넉시라도 님은 ᄒᆞᆫᄃᆡ 녀져라 아으
>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 믈힛 마리신뎌
> ᄉᆞᆯ읏븐뎌 아으
>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
>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자의 결백함을 나타내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큰 숫자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천만(千萬)'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잘못이나 허물이 전혀 없다는 결백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며 우는 자신을 산의 '접동새'에 빗대고 있다. 접동새의 울음에 자신의 슬픔을 겹쳐 놓음으로써 **임과 떨어져 슬퍼하는 처지**를 드러낸다.

② O: '잔월효성(殘月曉星)'은 새벽까지 남아 있는 달과 새벽별이다. 화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의 달과 별을 **결백을 알아주는 존재**로 내세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③ O: 임이 자신을 벌써 잊었느냐고 묻는 대목은 실제 답변을 구하기보다,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는 마음과 잊힌 데 대한 서운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물음의 형식으로 뜻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정서를 부각한다.

④ X: '천만(千萬)'은 잘못을 뜻하는 '과(過)'와 '허물'이 없다는 말에 쓰였다. 따라서 큰 수를 이용해 강조하는 것은 그리움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이나 허물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를 임을 향한 그리움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하면 '천만'이 수식하는 내용을 잘못 짚은 것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구애 행위나 짝짓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데,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은 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수컷과 싸워야 한다. 이 시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컷은 곧바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수치는 떨어진다.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수컷은 더 이상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좀 더 떨어지고, 번식기가 끝나면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수컷은 자신의 둥지를 지키면서 암컷과 새끼를 돌보는 대신 다른 암컷과의 짝짓기를 위해 자신의 둥지를 떠나 버린다.

① 노래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② 번식기 동안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낮게 나타난다.

③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④ 노래참새 수컷과 검정깃찌르레기 수컷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노래참새 수컷은 새끼가 둥지를 떠나면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어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양육할 때보다 더 낮아진다**. 양육이 끝난 후에 수치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반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둘째 문단에서 노래참새 수컷은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면 더 이상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좀 더 떨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양육이 끝난 후의 수치는 양육할 때보다 낮다**. 선지의 '높게 나타난다'를 '낮게 나타난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수정이 이루어진 뒤부터 떨어진다**. 수정 후에는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므로 수정 전까지의 상승 양상과 달리 수치가 낮아진다.

③ O: 셋째 문단에서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되면 올라가고, 암컷이 수정한 이후에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수컷은 새끼를 돌보는 대신 다른 암컷과 짝짓기하기 위해 둥지를 떠난다.

④ O: 첫째 문단에서 테스토스테론은 구애 행위나 짝짓기와 관련되며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래참새는 번식기에 수치가 올라갔다가 수정과 양육 경과에 따라 낮아지고, 검정깃찌르레기는 번식기에 올라간 수치가 번식기 끝까지 유지된다. 두 종류 모두 번식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 비번식기보다 수치가 높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은 기존 지능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기존 지능이론이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해 냈다. 다중지능이론은 뇌과학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적, 감성적 능력을 담당한다.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한다.

그런데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 우선, 다중지능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지능이라는 말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전제하는 것인데, 다중지능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

① 논리수학지능은 다중지능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대인 관계의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③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

④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대인 관계의 능력은 다중지능이론이 지능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 능력이다.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도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보므로, 그 개발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 문단의 '이뿐 아니라'는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을 포함하면서 지능의 범위를 넓힌다는 뜻이다. 다중지능이론은 논리수학지능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지 능력에 신체·정서·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함**한다.

② O: 첫 문단에서 대인 관계의 능력은 다중지능이론이 새롭게 포괄한 지능에 해당한다. 둘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도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인 관계 관련 지능의 측정 도구 역시 **개발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X: 첫 문단에서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다고 비판받는 대상은 **기존의 지능 검사**이다. 다중지능이론은 이를 '반쪽짜리 검사'라고 평가하며, 글에서 우뇌의 능력으로 제시한 창조적·감성적 능력까지 지능의 범위에 포괄하려 한다. 따라서 다중지능이론이 우뇌 관련 지능보다 좌뇌 관련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는 설명은 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④ X: 비판적인 연구자들의 근거는 새로운 지능과 기존 지능이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지능이 기존 지능의 하위 영역에 속하고,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선지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지능과 기존 지능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을 퇴고할 때, ㉠~㉣ 중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지하듯이 ㉠기후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유럽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기상 재해 앞에서 기후학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위기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크게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일 수는 있겠으나,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체결하다'는 '국제 협약'과는 어울리지만 '국가 정책 수립'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로 고쳐 각 대상에 맞는 서술어를 써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은 주어 '기후 위기는'과 서술어 '심각해지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날이 갈수록'은 시간이 흐르면서 위기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뜻으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심각해지다'**와 어울린다.

② O: ㉡의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은 **'기상 재해'를 꾸미는 관형절**이다. 기상 재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관계가 자연스럽다. '기상 재해 앞에서'도 그러한 재해에 직면한 상황을 나타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③ X: ㉢은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을 '과'로 연결하여 '체결하다'에 함께 이어 놓았다. 그러나 **'체결하다'는 '국제 협약'과 호응하고, '국가 정책 수립'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로 고쳐 정책에는 '수립하다'를, 협약에는 '체결하다'를 각각 대응시켜야 한다.

④ O: ㉣에서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은 '막다'의 목적어이고,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은 '기회'를 꾸민다. 문장 전체에서도 **'기회는'과 '남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는데, 이때 특정 단어에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나며,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 단어를 건너뛸 때는 '도약'이 나타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능력 하위 집단(A)과 읽기 능력 평균 집단(B)의 읽기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서 횟수는 1회로 제한하되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서 A 집단은 B 집단에 비해 약 2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읽기 후 독해 검사에서 B 집단은 A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으로 건너뛰는 현상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_____는 결론을 내렸다.

① 더 많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
② 더 많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도 더 많다
③ 더 적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많다
④ 더 적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도 더 적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 집단은 B 집단보다 고정 빈도가 높으므로 **난해하게 느끼는 단어가 더 많다**. 그러나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보다 짧으므로, 각 단어를 이해하려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글에서 '고정'은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눈동자를 멈추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두 집단은 같은 글을 한 번씩 읽었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눈동자 움직임도 없었으므로, A 집단의 고정 빈도가 B 집단보다 약 2배 높다는 결과는 A 집단이 난해하게 느끼는 단어가 더 많다는 근거가 된다. 한편 평균 고정 시간은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값으로, 고정 한 번에 들인 평균 시간을 뜻한다. 이 값은 B 집단이 더 높으므로 A 집단은 각각의 난해한 단어를 이해하려는 과정에 평균적으로 더 짧은 시간을 들였다.

① O: A 집단의 높은 고정 빈도는 난해하게 느끼는 단어가 더 많다는 뜻이고, 낮은 평균 고정 시간은 각 단어를 이해하려는 데 들이는 평균 시간이 더 적다는 뜻이다. **단어 수와 단어당 평균 시간**을 구분하여 두 연구 결과를 모두 반영하였다.

② X: 난해하게 느끼는 단어가 더 많다는 부분은 고정 빈도와 부합한다. 그러나 A 집단의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보다 짧으므로, '평균 시간도 더 많다'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로 고쳐야 한다. 고정 빈도가 높다고 고정 한 번에 들이는 시간까지 긴 것은 아니다.

③ X: A 집단의 고정 빈도가 더 높으므로 난해하게 느끼는 단어는 **더 많다**. 또한 평균 고정 시간은 더 낮으므로 각 단어를 이해하려는 데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 선지는 두 결과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X: 각 단어를 이해하려는 데 들이는 평균 시간이 더 적다는 부분은 평균 고정 시간과 부합한다. 그러나 A 집단은 고정 빈도가 더 높으므로, 난해하게 느끼는 단어가 '더 적다'는 **'더 많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완전 채식주의자는 이들 모두를 섭취하지 않으며, 페스코 채식주의자는 고기는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은 먹으며, 유제품과 달걀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섭취한다. 남은 세 가지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되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이들의 명칭은 라틴어의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lacto)'와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ovo)'를 사용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다. 락토 채식주의자는 (가) 먹지 않으며, 오보 채식주의자는 (나) 먹지 않는다.

① (가):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나):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먹지만 유제품은

② (가):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나):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③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나):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먹지만 달걀은

④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나):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락토'는 우유를, '오보'는 달걀을 뜻하므로 락토 채식주의자는 **유제품만**, 오보 채식주의자는 **달걀만** 먹는다. 두 유형 모두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는다는 공통 조건이 적용된다.

빈칸별 해설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이 들어간다. 지문에서 락토·오보·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모두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그중 '락토'는 우유를 뜻하므로 락토 채식주의자는 유제품을 먹고 달걀은 먹지 않는다. 빈칸 뒤의 **'먹지 않으며'**까지 연결하면,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생선·달걀은 먹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나):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이 들어간다. '오보'는 달걀을 뜻하므로 오보 채식주의자는 달걀을 먹고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고기와 생선도 먹지 않는다는 공통 조건에 따라, 빈칸 뒤의 **'먹지 않는다'**와 연결되는 대상은 고기·생선·유제품이다.

이 두 표현을 (가), (나)에 차례로 배치한 것이 ④이다.

NoteBase